

## 전남 서남권 4개 지자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박차'

목포시·완도·진도·신안군 등 '섬 벨트' 업무협약

섬 관광 활성화·공동 마케팅 강화 등 내용 담아

다도해를 품은 전남 목포시와 완도·진도·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4개 지자체가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봉진문 완도부군수, 정현인 진도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섬 엑스포 유치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서남해안 섬 벨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세계 섬 엑스포 유치와 지속가능한 섬 발전 도모, 섬 관광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섬 발전 정책 관련 예산을 분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 등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지난해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에 공

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목포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준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올해부터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첫 단계로는 지난 5월부터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 이다. 용역을 통해 개최 당위성 개발 및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또 섬·관광 관련 국제기구(UN관광기구 등)가 승인하는 국제 행사를 공동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서남해안의 4개 시·군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

로 결속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터전으로 떠오르는 섬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획기적

계기될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순천시,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내일 개막

'내게 ON 가든' 주제로 74개 작품 참가...도심 곳곳에서 전시



순천시 연향동을 비롯해 순천 도심 전역에서 17일부터 30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열린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내게 ON 가든' 주제로 열리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일반부 19개, 학생부 19개, 리뉴얼부 36개 등 총 74개 정원 작품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3시 연향3지구 내 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정원조성 참가자와 관

람객들은 한평정원 조성 에피소드와 도심 속 정원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페스티벌 기간 중 연향3지구 학생부 정원 인근에서는 관람객의 참여가 가능한 스탬프 투어와 인증샷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는 씨앗 연필, 그로우북(컵화분), 기프트폰 등이 선물로 전달된다.

전시·경연 기간 중 수상 작품을 심사·선정해 30일 오후 3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시상식이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국가정원 안에서 진행하던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를 도심으로 옮겨 도심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나가는 정원의 도시를 만들고 재능있는 정원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고속철 2단계 '자갈철길' 위기...“총사업비 제한이 걸림돌”

조오섭 의원 “LCC 등 경제성·안전성 우수한 콘크리트케도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콘크리트케도' 대신 '자갈케도'로 설계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국가철도공단(이하 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구간이 콘크리트케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케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250km/h의 4개 구간에 대한 케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350km/h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

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전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등을 고려할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이나 환경성 등에서 자갈케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9년 6월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맡긴 '콘크리트케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케도는 초기 건설비가 12억/km로, 자갈도상 8억/km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LCC를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의원은 “중간용역결과 설계속도

230km/h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케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을 자갈도상으로 케도설계를 해야할 상황이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KR은 고속철도의 케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케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